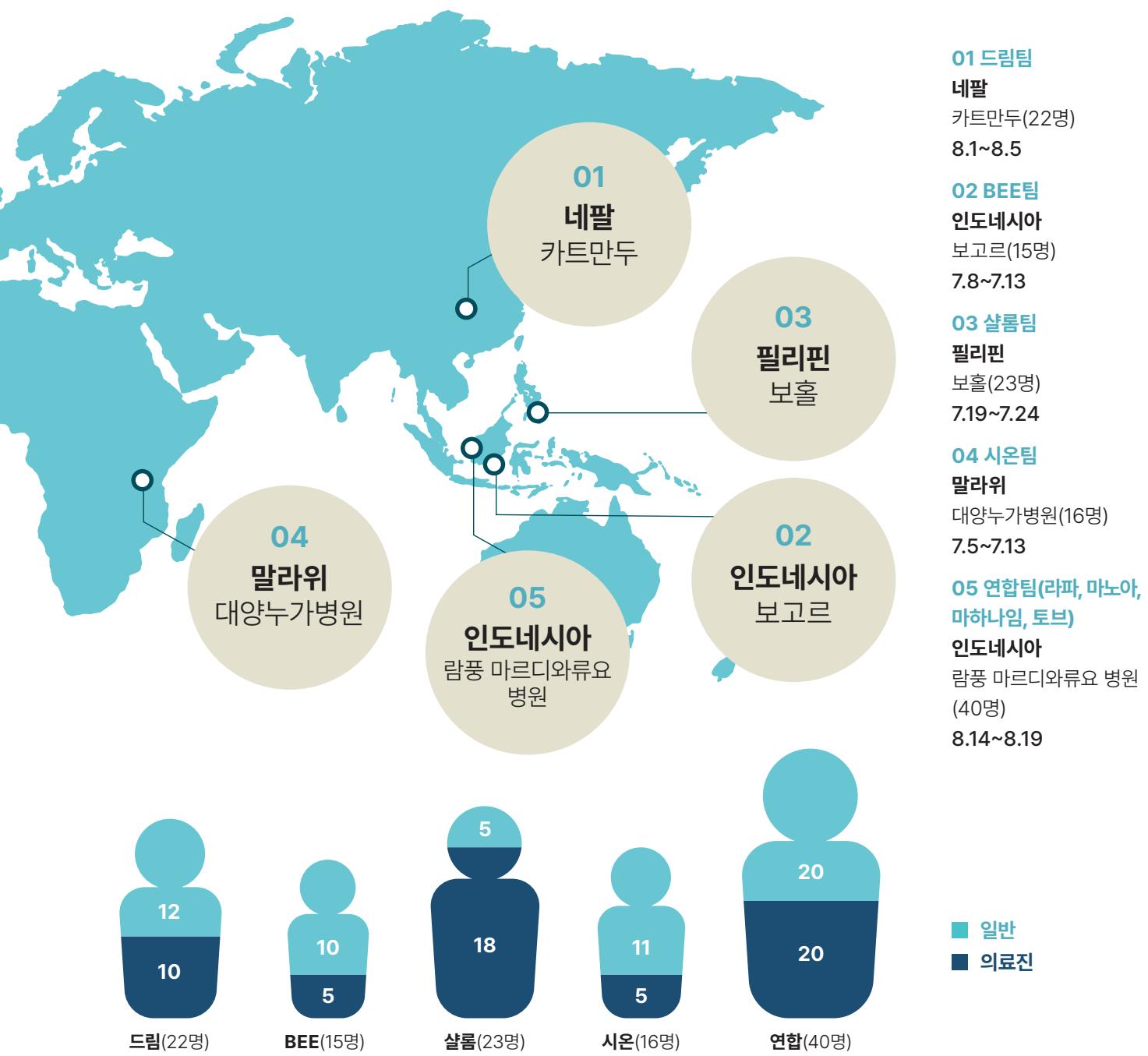


MEDIACCESS REPORT

Summer Outreach

2025.9.30

2025 메디엑세스 하계 아웃리치



01 아웃리치 진료 데이터



01-1 사업 전문화를 위한 세부 진료 데이터

BEE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고르

만성질환자 발견 수

- ① 당뇨 : 5명정도
- ② 호흡기 질환 : 2명정도
- ③ 기타

상급병원 진료 의뢰 환자 수

- ① 암 : 0명
- ② 기타 : 특이사항 없음

수술 필요 환자 발견 수 : 없음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 : 122명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의 수 : 50명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수 : 없음

영아 예방접종 교육을 받은 임산부의 수 : 없음

영아 영양관리 교육을 받은 임산부의 수 : 없음

통증완화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 : 없음

시온팀 : 말라위

만성질환자 발견 수

- ① 당뇨

·정형외과 : 0명

·비뇨의학과 : 20명

·가정의학과 : 2명 (hypertension 고혈압이나 hyperlipidemia 고지혈증을 비롯하여 비만/과체중 환자

에게 그리고 증상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glucometer로 당을 측정하였으나 실제로 당이 높게 나온 환자는 2명이어서 의아했을, 어쩌면 새벽부터 일찍 나와 오랜시간 공복으로 대기하는 중에 측정된 sugar level이라서 DM이 detect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됨)

② 호흡기 질환

·정형외과 : 20명

·소아과 : 2명

·비뇨의학과 : 30 명

·가정의학과 : 천식 5명이상, 결핵 10명 이상, 폐렴 20명 이상, 만성기관지염 30명

③ 기타

·고혈압 : 180명(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포함)

·비만 : BMI 25 이상은 꽤 흔했고, 30이상도 종종 있었음

상급병원 진료 의뢰 환자 수

① 암

·비뇨의학과 : 2명

·가정의학과 : 4명 (abdomen physical로 mass 관찰되어, r/o ovarian neoplasm으로 refer 4명)

② 기타

·정형외과 : 15명

·소아과 : 15명

·비뇨의학과 : 15명 (백내장 외)

·가정의학과 급성간염 1명 lab 소견으로 대양누가병원 refer → 추후 r/o bile duct stricture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피드백 받았던 것 같음.

·심한호흡곤란, 과호흡, 저혈압 : 1명
IV hydration하고 관찰하면서 대양누가병원 refer.

수술 필요 환자 발견 수

·정형외과 어깨 탈골 : 1명

·소아과 : 7명

·가정의학과 : 산부인과 전원 4명, 안과 수술 필요환자 5명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 : 없음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의 수 : 없음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수 : 없음

·건강검진 관련 진료가 시행된 3일간 방문한 모든 환자들에게 혈압체크, 그리고 그중 risk 있어 보이는 환자들에게 glucose level 체크한 것 정도로 검진은 시행되었고 기본 건강검진 (full blood test, X-ray, sono등)은 어려웠음.

통증완화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 : 150명

·대부분 정형외과 환자들은 시간, 기구만 허락 한다면 주사 등의 술기가 80% 이상에서는 필요

연합팀 : 인도네시아 람퐁

수술 필요 환자 발견 수 : 30여명

02 아웃리치 세미나



인도네시아 람퐁

연합팀(라파, 마노아, 마하나임, 토브)

• 마르디와루요 병원 의료인 대상 세미나 진행 건

교육에 참가한 의료인의 수 : 102명

• 양치 구강교육 / 손씻기 위생교육

캠페인 및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의 수 : 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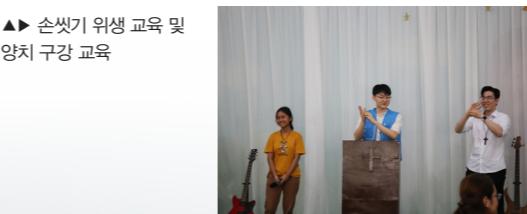
건강관리 교육에 참가한 노인의 수 : 20명



▲ 손씻기 위생 교육 및 양치 구강 교육



▲ 연합팀&송파B공동체



▲ 연합팀&송파B공동체



▲ 연합팀&송파B공동체



말라위

시온팀

- 제목 : Preparation of IV Mixture
- 진행자 : 조상은 약사
- 대상 : 현지 의료간호인력 20명
- 강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간호 위생 향상
- 내용 : 조제 시 지켜야 할 위생 수칙
- 교육에 참가한 의료인의 수 총 36명



“아웃리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

산악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교제시간(성찬식·식사교제·간증)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께서 선교센터를 만들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간증을 들을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아웃리치에 참석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 아웃리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분들과 연합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연합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사역에 오셔서 통역을 도와 주셨고, 인도네시아 공무원과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민영 선교사님과 남편 신승원 선교사님(중의사)이 현지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계셨던 뚜나스 마을 및 호산나마을에서 의료사역을 하게 되어, 환자들을 모으는데도 매우 좋았고, 사역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

주일날 예배에서 천명 가까운 아이들이 뛰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예배 안에서 자유하게 뛰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앞으로의 말라위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섬겨주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실텐데 내색한번 없이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준비해주시고 어딜가든 가장 앞장 서서 인도해주시는 흉하수 부부장님과 사모님이신 임 권사님, 제니퍼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깊이 보여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잠깐 왔다가는 아웃리치 인원들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정말 많이 배우는 아웃리치였습니다.

_김규황

●

공항에서 처음 만난 팀원 사람들과 머나먼 말라위로 함께 갔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을 스토리인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에 가능한... 갑작스럽게 아웃리치 제안을 받고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일대일양육 교육자료 중 순종 파트 공부하면서 늑5:5 말씀을 따라서 일단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아웃리치를 마칠수 있었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_진현주

사역을 마치고 주어진 여행기간동안 제니퍼 선교사님과 동역자(진현주 선생님) 집사님과 진솔한 나눔과 짐한 교제의 시간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한결같음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마음에 새겨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라위 현지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방문한 일정—정말 제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집사님들의 현장에서의 헌신과 서포트, 그리고 매일아침 말씀묵상과 나눔, 그리고 저녁시간 개인 기도시간을 통하여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귀한 배움과 개인적인 회개, 묵상의 시간이 있었고 말라위 영혼을 바라보며 그동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많이 회개하고 가슴아파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말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누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_정에스더

지금까지 말로만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했을 뿐 내 생각과 상충될 때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 애써 해석했다면 이번 아웃리치를 경험하고 난 후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_박재철

아웃리치는 제게 수련회나 기도원 방문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_정찬의

나이터울이 18살 나는 남매의 어머니인 40세 A자매는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면서, 진료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우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이야기를 연신 하였습니다. 이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6년 간 가사도우미 생활을 하였던 경험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매우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낀 권사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 기도를 영어로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시고, 너의 슬픔을 아시며,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라고 기도하였



필리핀 샬롬팀



인도네시아 BEE팀

네팔 드림팀

을때 이 자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맞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항상 눈물로 기도해왔어”라고 대답하였고, 저는 이 자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려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 가운데 “딸아, 너는 특별하다. 너가 마음을 열면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고,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이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너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예수님은 너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실거야. 그가 너의 힘든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실 거야. 너의 총명함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쓸아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을 때,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영접기도를 함께 하였고, 기도를 마쳤을 때 이 자매의 눈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자매의 “내가 사십평생을 살면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어.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에, 저희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매를 안아주고, 축복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매를 만나셨고, 이제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확신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곧바로 나에게 했던 이 축복기도를 나의 딸에게도 해달라며 자신의 18살 된 딸 신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디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신디는 쉴새없이 눈물을 흘렸고, 무슬림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이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머니인 A자매 역시 줄곧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며, 이 아웃리치 가운데 예비해주신 영혼들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끝마쳤을 때 두 모녀의 평안함이깃들어 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두 모녀를 보면서 우리 팀이 많은 것을 준비하여 왔고, 열심으로 많은 것을 주지만 그中最 가장 것은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임을, 그리고 그 이름을 먼저 알아 은혜를 먼저 경험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정

온누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것처럼, 온누리의료팀도 지난 세월 동안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과 동행하며 오지와 낙도 지역을 찾아가 의료사역을 감당하던 여정은 해외 아웃리치로 이어졌고, 2006년 ‘그리스도인 의료 네트워크(CMN)’로 이름하여 약 2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메디액세스(MediAcces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NGO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사장으로 이재훈 위임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에는 메디액세스 8개 현장사역팀 가운-

데 4개 팀이 연합하여 참여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추주엽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마르디와류요 병원(현지 기독병원)과 인근 시골 마을을 순회 진료하였고, 준비 과정부터 송파B공동체가 함께해 주셔서 더욱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5주 간의 아웃리치 준비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팀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역으로 바쁘신 분임을 알기에, 늘 자리를 채워주신 그 헌신은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으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채우는 은사’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발 후 현지에서 사역과 이동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수고와 기독병원 직원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한계와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의 수술 중 감염된 낭종이 터지며 강한 냄새가 수술실 가득 퍼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몸을 씻어내고 세수를 해도 가시지 않는 냄새였지만, 그 때 오히려 서울의 수술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잊고 있던 ‘현장의 냄새’를 다시 마주하며 사역의 살아 있는 생생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연합 사역 속에서 일정에 대한 이견이나 오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술을 마친 후 환하게 웃어주시는 람퐁 지역 주민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르완다 아웃리치에서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근래 중동이나 동남아 현장에서는 그러한 규모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쉬는 시간 없이 수술하면서 숨 가쁘게 지내면서 팀 전체를 살필 겨를조차 없었음에도 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팀장이 앞장선다고 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팀장은 그 일을 겸손히 지켜보는 자리에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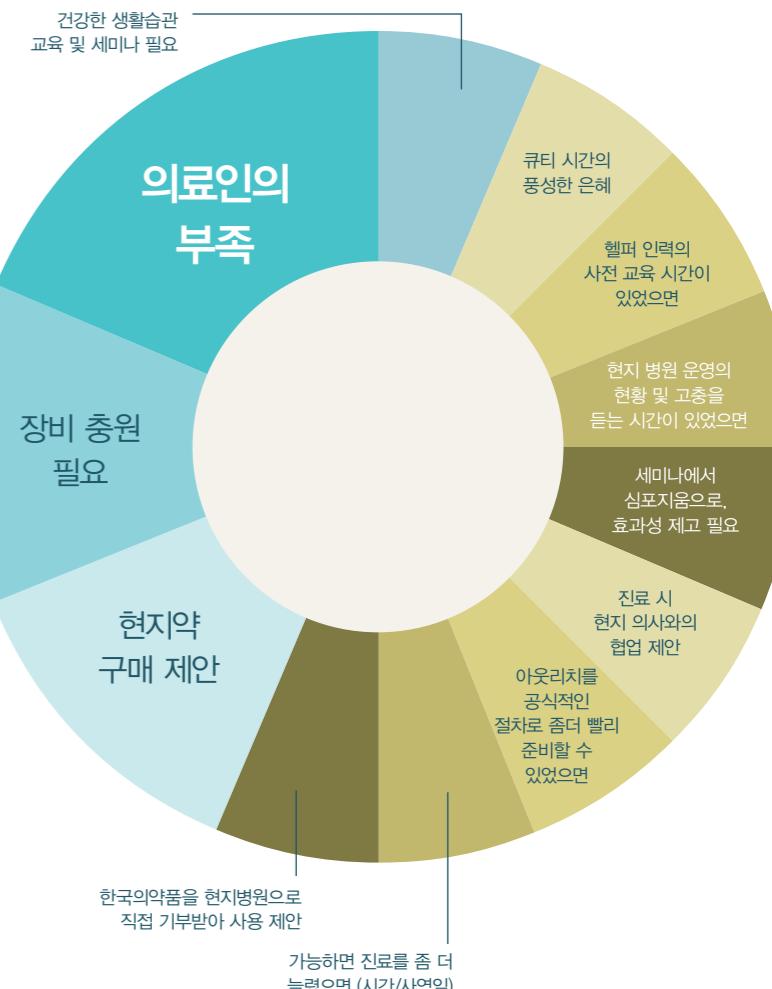
저는 계획적인 성향이 강해 프로그램이 준비된대로 진행될 수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었고, 준비된 시간표가 어그러져도, 젊은 의대생과 여러 의료진이 빈자리를 채우며 오히려 더 넉넉하게 훌륭히 감당해냈습니다. 그들의 순발력과 헌신을 보며 다시 한번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글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온누리 의료 아웃리치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풀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아웃리치는 결코 힘겹고 버거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어색하던 사람들끼리, 함께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낯선 얼굴이 친근한 동역자로 변하는 자리—그곳이 바로 의료 아웃리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메디액세스 대표팀장 윤상엽 집사

03 앞으로의 아웃리치를 위하여

- 현지에 많이 걸리는 질환이 피부질환이었고, 의외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음번 인도네시아 사역에서는 피부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초음파 등의 장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고 현지에서는 한국 약보다 현지(인도네시아)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인도네시아 약을 구입하는게 약제 구입비 절약 및 환자 치료 및 관계(rapport)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양누가병원으로 전원된 2명의 경우, 10일전? 꽤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거리상의 문제, 비용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악화된 채 방문한 케이스였습니다. 산부인과로 전원된 4명의 여성들 역시 mass의 크기가 복부의 전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큰 사이즈.. 이 역시 오랫동안 방치된 걸로 보여졌습니다.
- 내원 3~4개월 전 가운데 손가락에 벌레를 물려 굽었던 2세 아이 : 소독, 약 처방만 했어도 문제 없었을 것인데, 이미 굽어 유착되고 반흔 만들어져 손가락 끝 마디가 굽곡 수축이 온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면 기능이 조금은 회복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병원 권유 뿐이었어요.
- 진료현장을 찾는 내과환자들수에 비해, 의료진이 적어 한 환자당 진료시간이 꽤 족박하게 급하게 진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가능하다면 진료 일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말라위 현지에서 현지 약품을 사야한다고 보건부가 강조를 해서 난감했는데, 실제로 현지 가보니 대양누가병원에서 “한국 제약회사로부터” 기증 받았는데 다 쓰지 못하던 “말라위 국민들이 도저히 살수 없는 가격의” PPI (esomeprazole) 약품을 공급받아 상당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게 되어서, 결국 한국의 좋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현지의 보건부가 까다롭게 군다면, 현지의 한국계 의료기관을 통해서 한국약품을 공급받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현지에 가보니 실제보다 더 환자가 많아서 침술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은 침을 빼주고 침을 놓은 시간을 확인해주는 돋는 일손의 필요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아웃리치 가기 전 일반 봉사자 중 돋는 일손을 모집하고 2~3번의 교육을 통해 트레이닝하여 현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예비 모임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지 의사들과 협력하면서 의료시스템과 환자에 대한 이해와 진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교류 자체가 NGO의 중요한 사업 영역이고, 외국의사 진료 시 법적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진료 외에도 병원 내에서 고난이도 수술이나 시술을 수행하여 보는 것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말라위 사람들이 전기공급이 (특히 빈민촌이라) 거의 안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고 바로 자리에 누워서 자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출산율도 높고 역류성식도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몹시 많았는데 성인과 노인들에게는 거의 다 만성 역류성 식도염의 많은 증상 중 하나가 다들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쉽지 않아도 환자들에게 식사 후 2시간 동안 눕지 말 것을 교육해주고 안내해줄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04 보도자료

4-29 아웃리치

온누리신문 3

제1554호 | 2025년 8월 31일(금)

포토 디렉터스=&증정세
인도네시아

그 여름, 람퐁에서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람퐁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으며, 일부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온누리신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신문으로, 다양한 주제의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29 득집

제1554호 | 2025년 8월 31일(금)

제1554호 | 2025년 8월 31일(금)

“우리는 그들과, 그들은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

온누리신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신문으로, 다양한 주제의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누리신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신문으로, 다양한 주제의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온누리신문 게재된 말라위 아웃리치 소식

▲ 온누리신문에 게재된 람퐁 아웃리치 소식

▶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장님과 면장님이 주관하신 팀활동



▼ CGN인도네시아 유튜브에 업로드된 자카르타 보고로 아웃리치 소식



Times 360 Malawi
7월 10일

#Times360Malawi

Daeyang Luke Hospital has called on government health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utpatient department at Mseche Health Clinic under Traditional Authority Chimtu in Lilongwe District. This appeal follows a three-day medical camp which treated over 800 patients and uncovered major gaps in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s for the surrounding communities. The medical camp was organized by Daeyang Luke Hospital in partnership with other partners, and brought in 16 volunteer medical specialists from South Korea who provided a wide range of services. Principal Nursing Officer at Mseche Health Clinic, Angelina Edwin, says the clinic currently provides only maternity services and under-five immunizations, leaving a critical gap for community members in need of general medical care. Lilongwe District Council Director of Health Services, Wilson Ching'ani, welcomed the outreach effort and says it aligns with the Ministry of Health's long-term goals. The specialist services offered included urology, obstetrics and gynecology, ear, nose and throat, family medicine, orthopedics, plastic surgery and pediatrics.

Reported by Jimmy Chazama



▶ 현지 신문에서 취재한 말라위 아웃리치 소식

The Daily Times Daeyang wants Mseche clinic expansion

11월 2025 By Jimmy Chazama



Daeyang Luke Hospital has called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 outpatient department at Mseche Health Clinic. The clinic is under Traditional Authority Chimtu in Lilongwe District.

The appeal follows a successful three-day medical camp which treated over 800 patients and uncovered major gaps in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s for the surrounding communities.

The hospital said overwhelming turnout during the outreach proved the urgent need for expanded services, especially outpatient care at Mseche.

It said hundreds of patients were seen daily while many others were turned away due to capacity limitations.

The medical camp was organised by Daeyang Luke Hospital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Lilongwe District Health Office.

A team of 16 volunteer medical specialists from South Korea provided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plastic surgery, paediatrics, gynaecology, urology, internal medicine and orthopaedics.

Principal Nursing Officer at Mseche Health Clinic Angelina Edwin said